

어린 혁명가들을 위한 과학: 마르크시즘, 진화론, 프롤레타리아 아동 문학(1920-1935)

한민주†

1. 아동 출판의 모더니티와 정치성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근대 조선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근본적 계기는 피억압 민족이라는 식민지 현실에 있었을 것이다. 비록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대부분이 일본을 경유하여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게 되었지만 일본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달리 그들의 운동과 실천에 있어서 계급과 민족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민족과 계급의 경계를 모호하게 설정하여 민족적 사회주의 운동가로 활동할 수 있었던 이론적 토대에는 ‘과학’이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근대적인 것으로 이입된 계급 해방론으로서의 사회주의와 민족 산업 부강을 약속하는 근대 과학, 그 둘의 혼종인 마르크스 사회주의(과학적 사회주의)의 선동성이 강렬한 역사적 장면으로 부상했던 것이다. 근대의 문명과 발전을 상징하는 과학은 전근대를 부정하는 근대의 이단적, 전위적인 지식인 동시에 가난의 해방을 꿈꿀 수 있는 과학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가 하나의 과학이 될 수 있다는 마르크스 사상의 이론은 피식민지 조선인들에게 굉장한 판타지 효과를 산출할 만했다.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1193)

† 홍익대학교 교양학부, homofictor@hanmail.net

그러나 이러한 당대의 제반 사정에도 불구하고 계급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으로 인해, 한국 근대 과학·문화사를 규명함에 있어서, 마르크시스트 지식인들에 초점을 맞춘 ‘과학’ 개념은 과학사 연구 영역과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1920-1930년대 문항사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프로 문항의 연구 사정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명이 없다면 그것을 온전한 근대 과학·문항·문화사라 할 수 있을까. 따라서 어떻게 과학·기술과 문항·예술이 결합하여 마르크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장(場) 안에서 화해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대로 해소되는 길을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학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단순히 정의적인 실천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과학은 다양한 권력 관계에 의해 매 순간 정의되는 관계성의 사회적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 개념을 정치적·상징적 권력을 위한 투쟁의 자리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각 권력자들은 자신의 위치에 따라 과학에 대한 다른 정의를 개발해왔다. 그렇다면 마르크시스트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과학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졌을까.

이 논문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상(像)’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과학적 교양’이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한다. 근현대의 과학적 지식을 수용하고 응용하는 행위는 개인의 교양을 가늠해주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또한 과학적 교양의 표명은 개인을 넘어 민족, 국가, 계층 간의 공동체적 결속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주지하듯이, 근대 민족 국가의 발전을 모색하던 지식인들이 근대적 주체로 호출한 ‘소년’에게 요구했던 것은 ‘과학적 교양’이었다. 즉 다양한 정치적 노선에 따라 민족과 계급의 미래와 희망을 담지하고 있는 아동을 과학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어른 세대의 열망을 투사했던 것이다. 사실 ‘과학’과 ‘과학자’는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구성 아래 개념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특정한 과학 서사와 이미지는 재현되고, 소년 대중에게 ‘교양’의 명목으로 수용됐다.

계급 투쟁이 치열했던 1920-1930년대는 무산 계급의 혁명적 사상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사상가들 사이에는 어린이들에게도 계급적 현실 인식의 필요하다는 생각이 대두했다. 따라서 “오랫동안 깃발피고 자각 업든” 조선의 어린이들이 “힘을 합하고 정성을 쌓아 희망 만흔 압길을 개척하려고” “소년 모두가 도처에 빗발치듯 일어남은 현저한 사실이요, 주목할 현상이었다.”¹ 근대 초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모두는 어린이를 미래의 열쇠로

인식하였고, 이와 같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아동 문학을 필두로 한 아동 출판물의 발행과 보급으로 이어졌다. 조선의 낙후 원인을 밝히고 존망의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 계급을 구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던 지식인들의 과학 이미지는 그와 같은 교육적 명령과 함께 아동 도서 출판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방정환을 필두로 ‘어린이 해방’을 추진하던 ‘색동회’, ‘소년 운동’ 단체들은 어린이를 위한 문학 뿐 아니라 과학 교육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근대 아동 출판물이 기획, 구성한 과학 이미지의 특성을 살피고 분석하는 것은 발간 주체인 편집인이 지향한 근대의 아동 기획 방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근대성, 과학, 어린이에 대한 당대 사회의 인식을 고찰할 수 있게 한다. 계급주의 아동 출판물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월간 잡지로 『新少年(신소년)』, 『별나라』가 잇고, 단행본으로 『불별』, 『소년소설육인집』, 『소년소설집』 외, 동화집 『어린 페-터』”²가 있었다. 프롤레타리아 아동의 교육을 위해 이들 아동 출판물의 정치 선전과 선동의 기능은 매우 중요한 토대로 기능했던 것이다. 물론 야학과 강연, 집회에서의 대중 연설 등도 무산자 계급 운동에 큰 역할을 했으나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보급된 책, 신문 같은 인쇄 미디어의 기능은 프로파간다를 선전하는 데 효율적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와 아동 도서는 윤전기의 발명과 연관된 근대 산업 시대의 산물이다.³ 즉, 사회주의는 운동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과학·기술적 토대를 의미하는 인쇄 기술의 연마가 선행해야 했던 것이다.

위의 사회주의 아동 출판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20년대 아동 문학 잡지 가운데 프롤레타리아 아동을 대상으로 식민지 시대 현실 인식에 치열했던 아동 문학 잡지는 『신소년』(1923년 10월 창간)과 『별나라』(1926년 6월 창간)였다.⁴ 이 두 잡지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 Korea Artista

1 편집부, “취미있는 소년신문”, 『신소년』 4권 2호 (1926), 25쪽.

2 정철, “출판물에 대한 몇가지이야기”, 『신소년』 11권 5호 (1933), 24쪽.

3 레지 드브레, 최정우 옮김, “매체론으로 본 사회주의의 역사”, 『뉴레프트리뷰』 (도서출판 길, 2009), 376-378쪽 참조. 사회주의의 출발은 1867년, 인쇄에 10배의 성장을 가능케 한 마리노니의 윤전기 발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때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창안했던 사람이 인쇄공 피에르 르루(Pierre Leroux)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1848년 러시아 혁명에 참여했다.

4 류덕제의 논의에 따르면, 식민지 시대 아동 문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년 운동 단체들은 ‘소년’의 연령을 천도교소년회가 7세에서 16세까지, 조선소년연합회가 만 18세까지, 조선소년총연맹은 12세에서 18세까지로 생각했다.(류덕제, “『별나라』와 계급주의 아동문학

Proleta Federatio) 문인들을 필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영향 하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⁵ 또한 프롤레타리아 미술 운동의 전위성을 보여주는 표지화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아동 문학이 일제 시기 민족·사회운동의 중요한 일부였던 ‘소년 운동’과 결합하여 전개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⁶ 따라서 한국 아동 문학은 프로파간다화된 아동들로 하여금 독립된 근대 민족 국가 건설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 의식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이들 계급주의 아동 문학 잡지는 ‘소년 소녀 과학 문예 잡지’라는 표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과학’과 ‘문예’의 융합 관계를 보여준다. 자연히 잡지의 내용은 빈곤과 싸워 나가야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정치, 과학, 프로 문학 예술에 관한 것들이다. 계급주의 아동 잡지는 특별히 가난한 아이들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프로파간다화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소



그림 1. 『신소년』 1931년 4월 표지화

년·소녀 필자 뿐 아니라 지식인들에 의해 재현된 텍스트의 어린 주인공들은 계급 투쟁에 대한 기본적 교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소년』 1931년 4월호 표지화에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도상인 ‘낫’과 ‘망치’를 든 소년들이 등장한다(그림 1). 그림 속 소년들은 더 이상 보호 대상으로서의 아동이 아니라 혁명의 주체인 ‘소년 대중’으로 호출되고 있다. 시각적 언어인 도상적 코드는 필수적으로 시각적 서사를 구성하며 나타난다. 따라서 잡지 표지화의 도상(icon) 작용 아래 해당 잡

지의 의미”, 『국어교육연구』 46집 (2010), 305-334쪽 중 307쪽 참조) 아동 문학에 대해 유년을 만 4-7세, 아동을 만 8-13세, 소년을 만 14-17세로 나누며, 이를 통칭하는 이름을 ‘아동’이라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주장(虎人, “兒童藝術時評”, 『新少年』 9권 (1932), 19-22쪽)을 고려해 이 논문에서도 식민지 시대 ‘소년 운동’과 함께한 문학 활동을 포함하여 ‘아동 문학’의 범주로 삼겠다.

5 이 동맹은 문학이 프롤레타리아 해방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문예운동 단체이다.

6 원종찬, “아동과 문학”, 『한국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16쪽.

지 속 과학 지식과 마르크스를 필두로 한 사회과학 지식은 교묘한 이접과 혼종성을 발휘하며 서로 결합하고 작동하게 된다. 이로써 잡지 속의 모든 지식은 사회주의 과학의 도구가 되고 만다. 현대의 우리가 보기에 완전히 과학과 무관해 보이는 이미지들이 과학적인 것으로 현현되는 순간이다.

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과학으로 외장(外裝) 한 채 어른 세계의 유토피아 상을 재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1930년 8월의 『신소년』 표지화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그림 2. 『신소년』 1930년 8월 표지화

투쟁하는 마르크시스트 운동가들이 제시하는 진보적인 교육의 정치성을 잘 드러내 준다(그림 2). 같은 호에는 산촌의 60여 명 되는 가난한 학생들과 세 명의 교사를 둔 학교의 한 교실에 대한 묘사에서 시작하는 이동규의 소년 소설 “두 가지 정의(正義)”가 실려 있다.⁷ 교사는 수신(修身) 시간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 발표하도록 요청한다. 이에 마을 지주의 마름 아들인 박남석은 “큰 재산가가 되어서 공장을 둘씩이나 가지고 땅을 땃백석직이나 갖게” 되어 “그 공장안에 일하는 수만흔 직공들을 먹여살니는” “서울잇는 이 동리 지주(地主)갓흔 사람들이 참된 정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에 비하여 최영호라는 소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각오로 중학교를 중퇴한 채 청년회를 조직하고 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는 “사회주의자” 형을 정의로운 사람이라 주장한다. 두 가지 정의의 대조를 통해 지은이는 어린 무산 소년 소녀들이 계급 투쟁을 위해 싸우는 청년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에서 소년 대중 앞에 서 있는 교사나 지도자는 다리와 손처럼 몸의 일부만 재현되어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그림의 초점은 뒷모습의 교사가 아니라 정면을 주시(注視)하고 있는 무산 소년 대중에게 맞춰져

7 이동규, “두 가지 정의”, 『신소년』 8권 8호 (1930), 22쪽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년 대중을 교육시키는 교사들의 행위가 미래에 대한 사회주의적 희망을 투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를 바라보고 열광하는 소년 대중은 미래의 시간성을 담지하고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현 지도층의 머리 역할을 맡게 되고 정의 실현의 주체가 될 것이다. 이는 어른 세대의 유토피아적 비전이 소년 대중에게 전달되는 형국을 재현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반자본주의 정치 이념 아래 교육적 명령에 사로잡힌 사회주의와 아동 도서의 긴밀한 연결 관계가 드러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이때 사회주의 지식인들에게 어린이 교육을 위한 대중적인 주체는 물론 과학이었다.

이 논문은 『신소년』을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 아동 문학의 의미를 살피며 근대 자본주의, 산업주의 체제에 의해 발견된 ‘아동’이 계급과 민족의 ‘프로파간다 주체’로 호출되면서, ‘소년 대중’으로 재구축되어 가는 과정에 당대 과학적 교양의 파급력이 컸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는 아동 문학에 대한 기존의 동심 주의적 이해를 재검토하고, 아동에게 주입되는 과학적 교양을 통해 주조되는 근대적·계급적 주체상과 세계상이 체제나 지식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유토피아 상(욕망)의 재현이자, 타자(계급, 젠더, 인종)들에 대한 과학적인 주조 방식과 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⁸

2. 객관성의 칼날, 근대 과학의 신화 창조와 프롤레타리아 아동의 탄생

근대 지식의 결핍은 열악한 조선의 현실을 가장 노골적으로 선명하게 부각시켜 주었다. 따라서 1919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취학 아동 인구는 신교육에 대한 열망을 잘 반영하고 있다.⁹ 근대적 과학 문명에 대한 사회적 열망은 식민화된 조선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과학 교육’의 필요

8 근대 아동 문학 연구는 어린이의 순수성을 의미하는 ‘동심(童心)’의 발견에 초점을 맞춰 방정환 류의 ‘동심주의’로 편향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기존 논의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박지영은 방정환의 동심주의가 ‘신민화의 논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박지영, “‘천사동심주의’의 본질: 잡지 『어린이』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1권 (2005), 143-181쪽 중 141쪽 참조.

9 오성철, “식민지기 초등교육 팽창의 사회사”, 『초등교육연구』 13권 1호 (1999), 99-114쪽 중 107쪽 참조.

성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 정신에 부합하여 『신소년』은 과학, 이학(理學) 혹은 수학으로 대변되는 신학문을 ‘이과’, ‘산술’, ‘지리’, ‘소년 과학’ 등의 표제 아래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 같은 내용은 조선의 소년들이 근대 지식으로 무장하여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신소년』의 편집 방향을 충분히 보여준다. 편집인들은 소년 독자에게 잡지 내의 지식을 습득하여 동무나 소년 단체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전파하도록 촉구하였다. 일본 동경에서 유학생 주도 하에 만들어진 ‘색동회’는 “우리 조선의 색동옷 입은 삼백만 소년 소녀를 교양하고 지도하는 데 참된 방식을 연구하기 위하여 생겨난 모듬”이었다.¹⁰ 마찬가지로 소년 운동 역시 “조기(早起)라든지 독서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노동가튼 이따위 쉬운 과목을 걱정하여 노코 서로 권하고 깨우쳐 가면서 날마다 날마다 한가지씩 실행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자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었다.¹¹ 방정환은 무산 소년들이 계급적·민족적 차원에서 ‘지식’으로 무장하고 싸워나가는 함을 훈화하였다.¹² 그렇다면 가난한 노동자들의 아이들은 그 모임에서 어떤 지식 교육을 받았던 것인가. “그들은 었던 교육을 받고 잇느냐고 하면 일요일에는 부잣집 아해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동화를 듣는 대신에 그들은 근처의 로동학교의 방을 비러가지고 우주의 이야기라든지 생물의 이야기가튼 것을 드르며 사회에 이러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아저씨들에게 이야기하여 달라고 하야 드룹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드르며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당에서 찬미가를 부르는 대신에 그들은 씩씩한 노래를 힘있게 부룹니다. 그리고 때때로 연극가튼 것을 연습하여 보기도 합니다.”¹³ 소년들이 습득한 “우주의 이야기라든지 생물의 이야기” 같은 과학지식과 “사회에서 이러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사회 지식은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실천성과 결합하여 교육되었던 것이다. 교육가들에게 어린이와 과학은 동시에 사회적 재생을 위한 희망으로 인식되었다.

근대 아동 잡지들에서는 어린이 대상의 과학 지식들이 산재해 있다. 『신소년』의 경우, 문답 형식으로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소년 연구실’, 단편적인 과학 지식이나 세계 상식을 전달하는 ‘토막 지식’과 ‘세계 괴문’, 각종 실험과 제

10 일기자, “신년벽두에 ‘색동회’를 축복합시다”, 『신소년』 5권 1호 (1927), 17쪽.

11 편집부, “취미잇는 소년신문”, 『신소년』 4권 2호 (1926), 25쪽.

12 방정환, “새해를 마르면서(훈화)”, 『신소년』 5권 1호 (1927), 21쪽.

13 권환, “미국의 영·파이오니야”, 『신소년』 10권 6호 (1932), 2쪽.

작 원리를 알려주는 ‘자미있는 과학 실험,’ 계산 능력 향상을 위한 ‘산술 유희’ 등의 섹션이 마련되었으며, ‘과학,’ ‘생리,’ ‘이과(理科)’ 등의 표제를 통해 매호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과학 지식은 대개 환상적 기제를 활용하며 재현되었다. ‘벌나라’의 경우 소년 필자가 시골에 놀러갔다가 벌의 세계로 가 그들의 삶을 전해 듣는다.¹⁴ 이 같이 어린 독자를 염두하며 환상적 기제를 가미하여 과학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또 “사막(沙漠)의 선(船)”처럼 낙타의 생태 특성을 설명하는 글도 ‘동화’로 표기되어 있다.¹⁵ “개암이 궁전(宮殿)의 동화회(童話會)”는 개미들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해 내고 있는가 하면, “개고리의 가정(家庭)”은 연못에 사는 개구리의 생태를 동화적으로 형상화하였다.¹⁶ 이처럼 동화의 요체인 ‘환상성’과 과학 정신을 결합시켜 텍스트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지배적이다. 아동 과학 지식의 전달 방식에 있어서 환상성의 실험이나 의인 동화의 수용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 소년·소녀 독자들은 이러한 전달 방식을 통해 과학을 꿈의 기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린이 자신이 맞이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기능도 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과학적 정신과 태도를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일까. 아래의 인용문은 아동에게 요구되었던 과학적 사유 방식을 잘 설명해 준다.

사과 떨어지는 대에 의심을 가진 뉴-톤이나 주전자의 끝는 물이 뚜경여는 대에 의심을 가진 와트와 종달새 나는 대에 의심을 가진 서경덕 어른의 공부는 다 책밧게 잇는 공부인 것을 알아라. 공부는 오히려 책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듯고보는 여러 가지일 가운데에 잇는 줄을 알아라. 예로부터 훌륭한 공부를 한사람 무엇을 발명하고 발견한 사람은 조고만 일이라도 이상한 일이 잇스면 그것을 심상이 보지안코 의심을 가지는 까닭으로 공을 일우는 것이다. 우리 조선 소년 소녀들아! 글을 부지런히 일글 것은 물론이어나와 그대들도 책밧게서 의심 공부를 좀 하여보아라.¹⁷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과 증기 기관차를 발명한 ‘와트’의 예화를 통해 인용

14 김두성, “벌나라”, 『신소년』 7권 12호 (1929), 17쪽.

15 이필문, “沙漠의 船”, 『신소년』 6권 6호(1928), 55쪽

16 맹주천, “개암이宮殿의童話會”, 『신소년』 4권 11호 (1926), 21쪽; 이병화, “개고리의家庭”, 『신소년』 5권 5호 (1927). 21쪽.

17 雲齊學人, “공부에 의심을 가지라”, 『신소년』 3권 12호 (1925), 2-3쪽.

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심 공부’란 “들예를 나가서 먼 산을 바라보면 저산 넘어가 었더케 생겼는지 거기가 궁금해서 누구든지 한번 가보고 심흔 생각이 날 것이올시다. 컬넘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새나라를 열어노흔 것이나 모든 과학이 오날처럼 진보된 것은 그것이 다 이 궁금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올시다. 이 궁금한 생각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것입닛가. 사람은 이 궁금한 생각으로 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올시다”와 같이 의문과 회의를 품은 과학적 태도를 의미한다.¹⁸ 이러한 연구 태도는 에디슨이나 뉴턴 같은 발명가, 과학자들의 전기(傳記)를 소개하는 가운데서도 드러난다. 과학 위인에 관한 전기는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 더 나아가 제 이름까지도 잊고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와 발명가의 태도에 집중하여 교훈을 이끌어 내었던 것이다.¹⁹

사회적 차별과 고통의 악순환 속에 던져진 무산 소년에게 중요한 일은 자신이 놓인 계급 현실을 뚜렷하게 깨닫고 투철한 계급 의식으로 무장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지식인들은 아이들에게 과학을 제공할 수 있는 교훈적 이야기를 창작할 뿐 아니라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소개해야 했다. 프롤레타리아 아동 잡지는 과학 지식과 계급 의식의 동시적 교육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그것은 과학주의를 표방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신화를 창조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었다. 계급 투쟁의 역사를 과학화하기 위해 과학의 역사를 이끌어 오는 형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서구 유럽의 기술과 더불어 도입하고자 했던 과학은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세계를 지식 체계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이해됐다. 1920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근대 통계 지식의 대중적 보급 및 수용의 역사적 경로를 살펴보면 ‘과학적 방법’, ‘실증적 연구’에 대한 근대 지식인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 1925년 “조선의 사회 사정을 과학적, 수자적으로 연구”하자는 취지하에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학술 단체인 ‘조선사정조사연구회’가 결성된다.²⁰ 이 단체가 조사 보고했던 통계 수치들은 조선의 낙후와 결여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 조선의 운명까지 보여주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 민중에게 ‘수자적 관념’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한 민족주의 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

18 주산, “남극탐험기(壯快實話)”, 『신소년』 4권 8호 (1926), 35쪽.

19 이병화, “제일흠을 물른 에디슨(전기)”, 『신소년』 4권 6호 (1926), 22쪽; 백천, “시계를 삶은 뉴-톤(史譚)”, 『신소년』 6권 4호 (1928), 46쪽.

20 “사회사정조사연구사. 이옥 이원혁의 제씨가 창설, 조선의 사회사정을 과학적 수자적으로 연구, 기관지로 사회사정을 간행”, 『조선일보』, 1927. 6. 3, 3면.

다. 이들이 조선 민중에게 ‘수자적 관념’을 심어주고자 했던 이유는 그것이 민족적 차별과 공평한 분배에 대한 각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²¹ 새로운 사회를 향한 유토피아적 희망과 사회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과학적 방법에 대한 마르크시스트 지식인들의 신념은 어린이에게 비평적 사고, 권위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데 적용되었다. 과학적인 사유가 세계에 관한 비평적 조망을 고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것은 세계를 대하는 데 있어서 전근대적인 방식과의 결별을 의미했다. 과학은 비이성적인 사회 현상을 이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식됐고, 과학의 외면적인 객관성은 그것을 매력적이게 만들었다.

『신소년』은 전근대적이고 비이성적인 것들을 타파하는 도구로서의 과학을 정의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따라서 자신의 심리 작용에 의한 것임을 인식치 못하고 귀신을 보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나 전기 작용으로 일어나는 번개 현상을 천벌 받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의 재현이 많다.²² 이들의 비과학적인 사유는 아무 근거도 없고 황당무계한 것으로 평가절하 되었다. 반드시 혁신적인 프롤레타리아 아동은 “예전사람이 옥황상제의 딸로 미인으로 알든 이 달을 과학적으로 냉정하게 관측하여” 보는 비판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²³ 그런데 이 비판 과학적 인식은 “뜻하지 안은 그놈의 불경기바람에 우리네 아저씨 누나들은 품팔라 품팔 곳이업서 실업자가 되었다. 따라 가난한 살림은 더욱 비참한 구렁이에 빠져 우리는 단배를 주리며 굶을 때가 만케되었다. 그럼 불경기는 언제 생겨나서 이 세상 가난한 무리는 굶어 죽게되고 또 지금도 수만흔 대중은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소리를 치게되었나? 우리는 다가치 이 무서운 병이 어데서부터 생겨진것인가?”라는 의문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현상에 대한 비판력을 통해 “이 딱하고 기막힌 세상형편이야기를 똑바로 아러보잔” 욕망은 필연적으로 경제학 지식을 요구하게 된다. ²⁴ 이처럼 유물 사관적 입장에서 자본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을 폭로하려는 정치적 이념은 마르크스 과학과 경제학을 아동에게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신소년』에는 무산

21 한민주, “불온한 등록자들: 근대 통계학, 사회위생학, 그리고 문학의 정치성”, 『한국문학연구』 46권 (2014), 243-281쪽 참조.

22 푸로베스, “귀신이란 잇는 것이냐”, 『신소년』 10권 6호 (1932), 15쪽; 안호, “벼락, 번개이 약이”, 『신소년』 11권 7호 (1933), 12쪽.

23 김병제, “(紙上天文臺) 월세계관측”, 『신소년』 8권 11호 (1930), 1쪽.

24 현동엽, “(강좌) 불경기이야기”, 『신소년』 10권 7호 (1932), 4쪽.



그림 3. 『신소년』 표지화 (좌: 1926년 6월, 우: 1928년 6월).

소년 대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경제학 지식들이 상당수 소개되고 있다.²⁵

민족주의자와 마르크스 사회주의자, 민족적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과학 지식이 어린 세대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에게 동시에 호출되었던 과학은 비록 이념적·방법론적 차이를 보이지만 근대성에 대한 강력한 긍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았다. 이러한 사정은 『신소년』의 1920년대 초와 30년대 편집 방향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소년』은 창간 초기부터 중기까지 절충적이고 온건한 편집 방향을 보였으나 1920년대 말부터 1930년을 전후로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그 변화의 원인을 카프 작가들의 강력한 영향력 정도로만 이해하여 왔다.²⁶ 그러나 이러한 편집 방향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적 태도의 성격

²⁵ 『신소년』은 불경기와 공황에 대한 이해에서부터(이민, “불경기와 공황”, 『신소년』 10권 10호(1932), 18쪽), 노동과 노동력의 차이(철아, “賃金이야기”, 『신소년』 10권 1호(1932), 4-5쪽), 노동자는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물건이란 것(철아, “잉여로동(剩餘勞動)”, 『신소년』 10권 2호(1932), 4-5쪽), 왜 노동자가 상품화 했는가(철아, “상품의 가치”, 『신소년』 10권 4호(1932), 4쪽) 등의 경제학적 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²⁶ 장만호, “민족주의 아동잡지 『신소년』 연구 - 동심주의와 계급주의의 경계를 넘어서”, 『한

변화가 수반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신소년』 4권 6호(1926. 6)와 6권 7호(1928. 6)의 표지화에는 자연을 관찰하는 소년·소녀들이 재현되어 있다(그림 3). 두 표지화에서는 자연과 어린이의 친연성을 강조하며 두 대상을 낭만적 이상으로 밀접하게 묶어내려는 경향을 읽어낼 수 있다. 과학적 탐구 대상으로서의 민족적 자연과 그에 대한 관찰 태도는 자연과학 일반에 관심을 둔 민족주의적 ‘신소년’ 창조를 위한 기획으로 적절했던 것이다. 따라서 해당 잡지의 기사내용은 맹주천이 쓴 동화 “애국소년”과 정열모의 동요 “자라는 나라”(『신소년』 4권 6호), 고장환이 쓴 “참의 애국자(愛國者) 외 삼편(三篇)”(『신소년』 6권 7호) 같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신소년』이 1930년대로 가면서 보여주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성은 이주홍이 그린 표지화 “농촌소년”(『신소년』 7권 12호, 1929. 12)과 “박귀”(『신소년』 8권 3호, 1930. 3)에 재현된 소년 노동자의 도상이 잘 드러내주고 있다(그림 4). 노동 소년(勞農少年)들은 새날을 상징하는 태양과 함께 ‘빛나는 건설’ (“빛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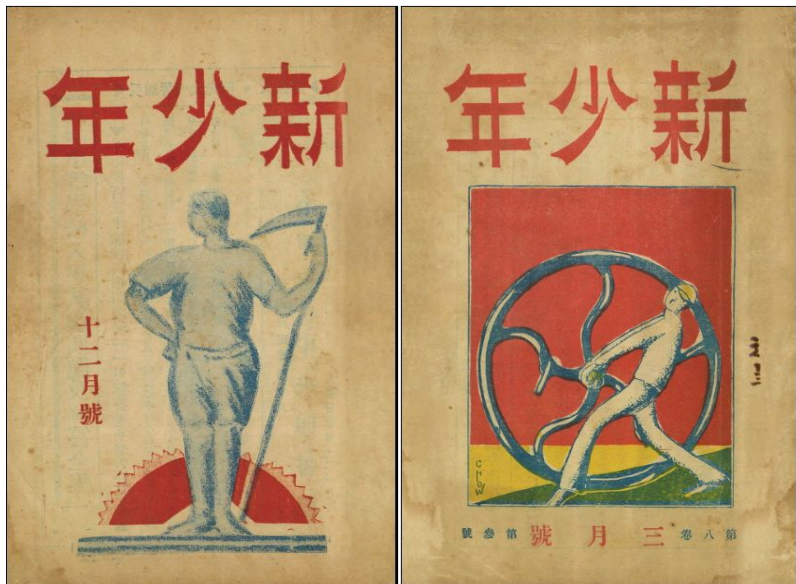


그림 4. 이주홍이 그린 『신소년』 표지화 (좌: 1929년 12월, 우: 1930년 3월).

건설”, 『신소년』 8권 2호, 1930. 2)을 위한 농기구와 바퀴를 돌리는 생산력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때 산업 자본주의 체제 하 무산 소년들이 들고 있는 기구들은 산업 건설을 이루기 위한 과학적·합리적 도구로 의미화 되면서 사회주의 과학의 은유와 결합한다. 팽이와 나사 바퀴는 계급 투쟁의 기계적 도구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비판성을 환기시키는 유물론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920년대 초반 『신소년』에 실린 과학의 성격과 1930년대 과학의 성격이 공통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분화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다. 앞선 시기의 경우 자연의 조화에서 낭만화 된 과학적 태도를 발견했던 것처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세계의 냉혹함에서 이데올로기화된 과학적 태도를 발견했던 것이다.

1920년대 인간 관계와 사회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개조론은 ‘민족’, ‘민중’, ‘부인’, ‘노동자’, ‘농민’, ‘청년’ 등의 어휘와 결합하여 새로운 주체상을 탄생시켰다. 새롭게 등장한 주체 가운데 ‘노동자’ 집단의 대두와 더불어 ‘어린이’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게 된 것은 당연한 순차로 보인다. 이때 노동 문제를 정치적·문화적 투쟁의 새로운 영역으로 담론화 했던 것은 사회주의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에 의해 부르주아 아동관과 분리된 프롤레타리아 아동의 계급성이 더욱 현저해지던 시기가 『신소년』의 편집 방향 변화를 논의하던 그 시점과 맞물리고 있음은 우연이 아니다.

3. 『신소년』의 진화론, 사랑의 과학

1920년대 초 사회 진화론의 영향력이 한풀 꺾였을 무렵, 한국의 지식 체계 속에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 특히 마르크스의 사회 사상이다.²⁷ 자본주의 사회가 진화하게 되면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마르크스의 유물 사관은 생물계에서 진화 법칙을 발견한 다윈의 이론을 응용한 것이었다. 다윈의 진화론에 기대어 사회 진화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가운데 마르크시즘은 ‘과학’으로 조명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 풍조와 더불어 『신소년』은 거의 매호 라마르크와 다윈, ‘진화론’과 ‘종자 이야기’,

²⁷ 송민호, “카프 초기 문예론의 전개와 과학적 이상주의의 영향: 회월 박영희의 사상적 진화 과정과 그 의미”, 황종연 편, 『문학과 과학1: 자연·문명·전쟁』 (소명출판, 2013), 163-194쪽 중 163쪽 참조.

‘유전학’ 등에 관한 이론 소개로 상당수의 지면을 할애하였다.

『신소년』이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진화의 사실을 부정하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인식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향파의 동화 “천당”에는 인간들처럼 예배당에서 천당을 꿈꾸며 기도로 생활하고 있는 쥐 부부가 등장한다.²⁸ 이 쥐 부부가 따라간 소년들의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형상화하는 것이 이 소설의 주요 테마라 할 수 있다. 사실, 소년들이 예배당에 참석하지 않고 새롭게 발견한 천국이란 다름 아닌 사회주의 운동을 도모하는 청년 회관이었다. 이 작품은 종교적인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유물론을 이론적 근거로 내세웠던 마르크스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애시 당초 과학의 존립 근거는 종교적 믿음이 지배적인 세계에 균열을 내면서 마련되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기독교와 자연적 과정에 의하여 다른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진화론의 대립은 과학과 종교 사이의 오랜 사상적 투쟁을 의미한다. 『신소년』은 “진화론을 처음 주장할 때에는 예수교인들이 한없이 반대를 하였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²⁹ 또한 창조론의 진리를 깨고 그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2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저술한 다윈의 “책이 출판된지 몇칠만에 곳 아홉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따-빈 진화론은 전세계에 퍼지게” 되었음을 높이 평가한다.³⁰ 진화론을 소개하는 필자들은 다윈이 진화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과학적으로 다루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고 있었다.³¹ 이처럼 『신소년』에는 진화론을 위시(爲始)하여 자연과학에 대한 종교계의 반론을 재반박하는 형식의 글들을 상당수 실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오랜 반목(反目)과 대립은 『신소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신소년』은 철저히 진화론의 입장에 서 있었고, 인류 창조론에 대한 비판적 근거로 작용하는 자연과학적 논의들을 실었다. 신이 인류를 창조했다는 설은 “동물이나 식물의 화석을 증거로”하여 비판되고, “이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깨트리는 것은 근대의 자연과학”의 힘임을 강조하였다.³² 한 발 더 나아가 “소위 하나님이란 그거야말로 우리 인류의 조상 미개한 그들이 만드러

28 이향파, “천당”, 『신소년』 11권 5호(1933), 12-15쪽.

29 이상대, “진화론이야기(속)”, 『신소년』 8권 5호 (1930), 16쪽.

30 이병화, “(傳記) 따-빈이 略傳”, 『신소년』 8권 5호 (1930), 45쪽.

31 이상대, “(과학)생물의 진화”, 『신소년』 8권 5호 (1930), 46쪽.

32 이상대, “조물주의 정체(과학)”, 『신소년』 8권 3호 (1930), 12쪽; 구직회, “조물주란 무엇이나?”, 『신소년』 10권 2호 (1932), 14쪽.

내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다. 미개한 사람들은 자연 현상에 대한 공포의 차단막으로 신을 창조해 낸 것에 불과하다는 1차 진실의 폭로. 그리하여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가공된 신의 사상은 “인간의 복이라든지 불행까지를 다 하나님에 마타가지고 잇는 것이라는 생각을 나옴고 못 살든지 불행가튼 것은 전생애 죄를 지엿다든지 또는 었던 일이 잇서 날 때부터 복을 못 밧고 태여 나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만들어내엿다”는 2차 진실의 폭로. 이러한 이중 진실의 폭로는 창조론에서 비롯되는 계급론을 문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라는” 행위는 야심가들의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³³ 이 지점에서 주목할 점은 사실을 폭로하는 진실의 도구로 과학적 비판력이 활용되면서 사회주의 과학을 새로운 과학으로 등장시키는 동시에 종교적 믿음의 체계를 변화시켜 사회주의를 마법화 하는 형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신소년』에서 재현하는 진화론의 특징적인 면은 생존 경쟁을 둘러싼 약육강식의 진화론에 대한 회의를 강하게 드러낸다는 점이다. 1919년 3·1운동의 실패로 제국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사회 진화론에 대한 회의와 반발이 다양하게 재현되었다. 권경완의 동화 “세상구경”은 약육강식의 진화론적 세계관이 지배적인 세계의 모습을 종말론적으로 바라보고 있다.³⁴ 어느 날 옥황상제의 어린 딸이 망원경으로 바라 본 지구의 정경은 “사람들이 쓸 때 업는 일흠과 돈의 욕심을 제각기 채우랴고 서로 죽이고 달코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중에 피잇고 힘잇는 놈이 약하고 얼숙한 놈을 잡아먹는 것이다.” 약육강식으로 인해 살아남은 최적자의 생존 광경은 폭력적이고 그로테스크하기 짝이 없다.

상제는 한숨을 쉬시면서 “먼저 말한것과갓치 몇치남어잇서 가튼사람들을 잡아먹고 잇는 사람들은 곳 역세고 영리한 사람들이요 잡아먹힌 사람들은 약하고 얼숙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지금 남아잇는 저 사람들만 살가요?”

“그런 법이 업나니라. 물론 그 사람들도 좀 지나면 다 죽고 말 것이다. 제 동무를 잡아먹고 저혼자 살 수 잇니? 저 사람들은 다 저러케하야 스사로 망(亡)하고 죽는 것이다.”³⁵

33 이민, “(강좌)사람이 만든 하나님”, 『신소년』 11권 7호 (1933), 2-4쪽.

34 권경완, “세상구경”, 『신소년』 3권 11호 (1925), 32쪽.

35 같은 글, 35쪽.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육강식을 기조로 한 사회 진화론의 종국(終局)은 최적자의 승리가 아니다. “제 동무를 잡아먹고 저혼자 살 수” 없는 인간이란 동물은 “스스로 망하고 죽는 것”이 옥황상제가 말하는 생존의 법칙이다. 이와 같은 인류의 종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옥황상제가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1920년대 ‘생존 경쟁’의 세계에서 ‘상호 부조’의 세계로 시대 윤리를 구축하려한 움직임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 크로포트킨에서 기원한 상호 부조론은 사회주의자에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동물의 세계에서 상호 부조의 현상을 발견한 크로포트킨의 비판 대상은 다윈의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 개념이었다. “상호 부조론은 생존 경쟁 논리에 대한 반박과 그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크로포트킨은 진화와 진보에 대한 과학적 믿음을 신봉하고 있었으며,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이 아니라 상호 부조와 연대를 통한 진화의 가능성”을 믿었던 것이다.³⁶ 권경완의 동화 역시 약육강식의 종말론적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로 ‘사랑’을 통한 인류의 융화를 제안하고 그 희망의 불씨를 “지구의 동쪽에도 좀 북쪽 산만코 바다만코 마른 무궁화 입사귀들이 어름판에 훌훌날라다니는” 조선에서 발견하는 것으로 결말을 장식한다.³⁷ 이처럼 『신소년』에서 구현하는 프롤레타리아 아동의 과학적 사유는 인류애적 사랑으로의 이념적 확장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다른 생명 형태들과 동등하다는 다윈의 주장은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이 지배적이었던 당대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다윈은 자연 질서 내의 유비를 강조하고, 인간과 다른 생명 형태들이 동등한 친족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설명 양식에서는 동물과 식물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인간은 설명의 수단이 되었다.³⁸ 동물과 식물의 지리적 분포 및 역사적 변이에 관한 지식을 심화시키며, 관찰자가 되어 식물의 수정과 교배 실험에 심혈을 기울였던 다윈의 연구 경향을 반영하듯이, 『신소년』에서 “화분(花粉) 이악이(과학)” (편집국, 『신소년』 8권 4호 [1930. 4])와 “종자(種子) 이악이(이과)” (이병화, 『신

36 소영현, “아나키즘과 1920년대 문화지리학”, 『현대문화학의 연구』 36권 (2008), 345-375쪽 중 360쪽.

37 권경완, 앞 글(각주 35), 36쪽.

38 질리언 비어, 남경태 옮김, 『다윈의 플롯』 (휴머니스트, 2008), 144-145쪽 참조.

소년』 8권 5호 [1930. 5], 44쪽) 등 식물과 동물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점은 ‘과학’ 필자인 김정구의 고백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³⁹ 이 가운데 ‘동식물의 일치’와 ‘종자 이야기’처럼 종의 기원을 탐구하는 글들의 의미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나팔꽃과 벌의 일치를 주장하기 위해 그 시초를 찾아 수정 난세포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과학 섹션 필진의 노력은 종 간의 차이를 지우고 인류애와 세계 보편주의를 꿈꾸는 마르크시스트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던 것이다. 이 점은 손진태의 ‘과학 동화’ “흑인종과 백인종의 팔다툼”을 참고할 수 있다.⁴⁰ “우리가 얻는 생각하면 사람가운데는 우량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이 잇는 것갓치 생각됩니다. 쉽게말하면 서양사람들은 한울님이맨드실 때 북허 제일 훌륭한 인종으로 점지하고 흑인종갓치 못생긴 사람들은 처음부터 못생긴 인종으로 맨들려진 것 갓습니다. 서양사람들은 지금 비행기와 군함을 타고 다니며 전화와 전보로 말하는 이 세상에 흑인종들은 아극도 벌거숭이로 원숭이와 갓흔 생활을 하고 잇습니다. 흑인종은 그것을 아모리 가리치드래도 서양사람과 갓치 훌륭한 인종이 되지못하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얻는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말 흑인종은 아모리 가리치드래도 훌륭한 인종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인종에는 정말 우등인종과 열등인종의 차별이 잇갓습닛가? 이것을 한번 흑인종과 백인종의 팔다툼으로 이야이하여보갓습니다”로 시작하는 이동화는 서로 다른 인종 간의 팔다툼 끝에 “원숭이와 갓흔점이 잇다엿다하야 내가 제일조흔 인종이니 네가 제일 조흔 인종이니 하는 것이 쓸데업는” 행동임을 깨닫는 결말에 도달한다.⁴¹ 그러한 어리석은 싸움보다 훌륭한 문화 창조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취지에서 등장 인물 서로가 나누는 악수는 인종을 제거하고 인류 평등주의를 실천하려는 의식의 표명이다. 이는 조선의 소년운동이 세계 평화를 궁극의 목적으로 삼아 “국경을 초월하야 서로 단합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아서 꾀꿉내 한덩어리가 되자”는 국제적 사회주의 단체인 “인터내셔널”과 뜻을 함께 하는 맥락과 닿아 있다.⁴² 전 세계 노동자의 연대

39 김정구, “칠요이야기”, 『신소년』 4권 3호 (1926), 17쪽. “신소년여러분께 이과 그 중에도 동물과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드리고 십헛스나 3월달은 그 상당한 이야기가 업기에 七曜이야기나 조금말습하겠습다”와 같은 김정구의 서술은 아동 대상 과학 주제가 주로 동·식물 이야기에 편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40 김병호, “동식물의 一致(이과)”, 『신소년』 8권 5호 (1930), 22쪽.

41 손진태, “흑인종과 백인종의 팔다툼”, 『신소년』 5권 1호 (1927), 26쪽; 같은 글, 29쪽.

42 심두섭, “少年斥候團友에게”, 『신소년』 3권 8호 (1925), 18쪽.

를 피하며 인종이나 민족을 초월한 인터내셔널리즘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에 결합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 개조의 원리로 등장할 수 있던 것이다.

4. 다른 세상을 꿈꾸는 변혁의 과학

사회주의 지식인들은 독점 자본주의 아래 인간성이 상품화 되는 것을 우려하며 보편적인 인간성 확보를 위해 인간 해방의 도구로서 기능하는 과학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마르크스는 현 사회가 계급의 대립으로 이루어진 사회이며 또한 계급적 사회에 있어서 사회 조직의 변혁은 항상 계급 투쟁의 방법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계급 투쟁설을 주장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동일한 사회에서 이해를 달리 하는 두 개 이상의 계급이 존재하여 “그 옛날 계급은 현상유지가 자기를 위하여는 이익이라고 사유함으로부터 현상 타파에 반대하고 이와 반(反)하여 다른 계급은 현상 유지가 자기를 위하여는 불이익이라고 사유함으로부터 현상 타파를 주장한 결과 차등(此等) 계급간(階級間)에 소위 계급투쟁이 기(起)하여 그 계급투쟁상 만일 현상타파를 요구하는 계급이 승리를 얻게되면 그때에 처음으로 사회 조직의 변혁이 실현”되는 것이다.⁴³ 따라서 『신소년』은 어린 독자를 사회적 약자인 프롤레타리아(적 사고를 지닌 아동)로 만들기 위한 목적 아래, 그 수단으로 과학에 깊이 관련된 서사를 동원하여 생존 투쟁과 같은 이념을 주입하려 했다.

동화 “개구리와 독집이”는 항상 힘센 개구리에게 착취 당하던 약한 개구리들의 봉기가 승리를 거두고, 쫓겨난 힘센 개구리들은 두꺼비로 퇴화한다는 이야기이다.⁴⁴ 창작동화 “꽃나라 싸흠과 두소녀”에서도 이와 같은 계급 투쟁의 이야기를 식물계에 비유하여 전달하고 있다. 어느 봄날 꽃동산에서 목단꽃처럼 굵고 예쁜 꽃들만 흥겹게 놀고, 할미꽃, 개나리, 진달래 같이 작은 꽃들은 모두다 고개를 트러 박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억압받는 작은 꽃들은 불만을 품고 큰 꽃을 미워하지만 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억눌려 살아가던 작은 꽃들은 ‘단결’하여 싸우고 봉기에 성공한다. 이야기는 전후반부로 나뉘어 꽃동산에 나물을 캐러온 소녀 복순과 꽃구경을 나온 소녀 귀옥의 이야기가 다시 전

43 이순탁, “‘말크쓰’의 유물사관(1)”, 『동아일보』, 1922. 4. 18, 3면.

44 향파, “개구리와 독집이”, 『신소년』 3권 5호 (1930), 36-42쪽

개된다.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라는 계급 차이로 두 소녀의 행동과 인식이 비교되는 가운데 “복순이는 냉이죽을 먹고 꿈속에 헤매여다니며 식물계(植物界)를 꿈속에 보고 큰 암시(暗示)”를 받는다.⁴⁵ 이 두 동화에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진화론은 전복되고 있다. 게다가 개구리나 작은 꽃들의 계급 투쟁은 사회 조직의 변혁을 실현한다.

앞서 밝혔듯이 근대 아동 문학과 아동 잡지는 어린 세대를 통해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지식인들과 교육자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이때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지식인들의 유토피아적 비전은 ‘진보’ 이데올로기와 결합한다. 따라서 지식인들은 과학 서사를 통해 진보의 개념을 소생시키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서구에서 이입된 과학은 근대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결핍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열망은 집단 무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무산 계급 어린이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밥’뿐만 아니라 ‘지식’으로 표출된다. “세상에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동무들이 ‘밥’의 주립과 ‘배움’(지식)의 주립을 당하는지 알아야 하오.”⁴⁶ 이때의 지식은 사회를 변혁시키고 인간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도구로서의 과학 지식일 것이다. 따라서 과학으로 무장한 신소년들에게는 계급에 대한 비판력이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프롤레타리아 소년들의 비판적 성격이 반영된 것은 ‘벽소설’이나 “우리들의 레포”같은 르포 형식의 편지글, 어린 프롤레타리아 노농 소년 소녀들의 생활을 재현한 ‘소년 소설’과 ‘소녀 소설’, 소년 소녀 직공의 ‘수기(手記)’처럼 혁명적 장르로 등장하여 프롤레타리아 아동 문학의 세계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악마갓흔 돈이 업서지기 전에는 우리들은 언제나 언제나 이꼬락송이를 끌고갈거야!!”라는 소년들의 현실 인식이나 부르주아 집안의 아이들과 다른 처지에 놓여 있는 프롤레타리아 소녀들의 계급적 인식이 도달하는 지점은 ‘미래’라는 유토피아적 비전의 세계이다.⁴⁷

금순아 우리는 아려야 한다. 미래의 우리들의 행복된 세상이 한거름 더 갖가워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 아려야 한다.

나는 어젯밤 아젯씨들한테 압날에 잘 살수있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서…… 참

45 김명겸, “꽃나라싸흠과 두소녀”, 『신소년』 9권 7호 (1931), 26-29쪽

46 노양근, “신소년은 이리해야 하오(감상)”, 『신소년』 9권 7호 (1931), 11쪽.

47 안평원, “少年職工手記(소년소설)”, 『신소년』, 7권 12호 (1929), 38쪽; 오경호, “불쌍한 소녀(소녀소설)”, 『신소년』, 8권 5호 (1930), 30-33쪽.

엇저면 그러케 자미잇고 유익하나?

천하고 가난한 우리에게도 행복된 살님을 차출수잇는 방법이 숨어있다는 것을 나는 아랫씨들에게 철저히 깨달앗단다. 그래 압날의 희망된 생활을 눈에 그리며 공장길을 걷는다. 걸으며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짓고…… 하다가 심심 푸리로 휘파람을 불며 나는 지금 공장문압해 닥아왔다.⁴⁸

인용문의 여공이 노동자 아저씨들의 교육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미래의 우리들의 행복된 세상”은 사회주의가 건설하려는 ‘대중 유토피아’의 세계이다. “대중 유토피아를 향한 집합적인 꿈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의 행복과 함께하는 사회와 세계를 감히 상상하게 했으며, 그 사회와 세계가 실현되면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것들이 다 충족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다.”⁴⁹ 이 때문에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는 대중 유토피아는 무산자 아동이 세계를 바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문학 장르로서 공상 과학 소설(science fiction, 이하 SF)가 있다. 근대 초기 과학적 지반이 약했던 조선의 현실 때문에 과학 기술의 계몽 수단으로서 활용되었던 SF는 개인 창작보다 번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1910년 신소설의 개척자 중 하나인 이해조에 의해 최초로 번안된 서구의 SF는 쥘 베른(Jules Verne)의 작품들이었다.⁵⁰ 그리고 1920년대에 이르러 프 로 문학의 대표인 박영희는 카렐 차פק(Karel Capek)의 SF 『로보트 R. U. R(Rossum's Universal Robots, 1921)』을 『인조 노동자』(1925)로 번역하여, 계급적으로 하위를 점유했던 로봇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조선의 독자에게 소개했다.⁵¹ 같은 시기 『신소년』에는 프랑스 작가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Cyrano de Bergerac)의 『달나라 여행(Histoire comique des états et empires de la lune)』(1656)이 과학 필진이었던 이호성에 의해 “달나라”로 축약 번역되어 실린다.⁵² 1600년 당대의 종교적·과학적 신념을 풍자

48 현동주, “공장과 우리들 - ××女工의 편지글”, 『신소년』 9권 8호 (1931), 9쪽.

49 수잔 벅로스, 윤일성·김주영 옮김, 『꿈의 세계와 파국: 대중 유토피아의 소멸』 (경성대출판부, 2008), 11-13쪽 인용은 13쪽.

50 김창식, “서양 과학소설의 국내 수용 과정에 대하여”, 대중문화연구회 편,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55-92쪽 중 55쪽 참조.

51 한민주, “인조인간의 출현과 근대 SF문학의 테크노크라시: 『인조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5호 (2012), 417-449쪽 중 417쪽 참조.

52 이호성이 번역한 “달나라”는 『신소년』 3권 8호 (1925. 8)부터 3권 10호 (1925. 10)까지

하고 있는 시라노의 작품은 한 과학도의 달나라 여행기이다. 주인공은 자신이 발명한 비행기를 이용해 달나라에 도착한다. 그가 도착한 달나라는 귀족이 쓰는 말과 평민이 쓰는 말로 나뉘어져 있고, 지구에 비하여 진보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그는 달나라 학자들의 심사를 거쳐 열등한 동물로 판정된 뒤 새장에 갇혀 지내다가 거짓이나 속임이 통용되는 달나라에 염증을 느껴 다시 지구로 돌아온다. 시라노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이 정주하는 세계의 범위를 더 이상 한정짓지 않고 자신의 세계가 다양한 세계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을 성취시켰다. 또한 과학과 대립 항에 놓여 있는 종교적 세계관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시라노의 인식은 유심론을 지배 계급의 철학으로 비판하고 있는 1920-1930년대 마르크스 사회주의 사상과 겹쳐진다.⁵³ 물질이 이 세계의 근본이라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인간 이전에 이 세계가 잇섯고 정신 이전에 물질이 잇섯다”는 자연과학적 입장에 서 있었다.⁵⁴ 따라서 종교적 회의와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했던 시라노의 작품은 『신소년』의 과학관과 잘 부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5. 불일치를 생산하는 문학과 과학

이 논문은 근대 프롤레타리아 아동 문학 잡지 『신소년』에 구현된 과학적 교양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근대 무산 소년·소녀들이 그들에게 교육된 과학적 교양의 성격과 결부되어 주체상과 세계상을 어떻게 형성해 갔는가를 도상 해석학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근대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된 ‘과학성’은 어떻게 시각적·서사적으로 구축되었으며, 그것의 ‘정지성’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과학을 통해 근대 아동이 자기 및 타자 인식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는 것에 연구 목적이 있었다.

근대 아동에게 함양되었던 과학적 교양의 역사는 한국의 근대 과학기술사 연구와 근대 문화 연구의 접목을 통해 연구 대상을 각종 미디어에 재현된 과학 서사와 과학 이미지들에까지 전폭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나 과

3회 연재되었다.

53 박태양, “(강좌) 「唯心論은 엇제서 생겼나」, 『신소년』 10권 10호 (1932), 9-12쪽.

54 박태양, “철학상의 두가지 견해”, 『신소년』 10권 9호 (1932), 6-7쪽.

학의 공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근대 시각 문화의 발달이 기여한 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학의 이미지는 과학자에 의해 생산되지만 비전문가에게 도달되도록 재 디자인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중 문화는 과학에 대한 민족적 열망과 아동을 연결 지었다. 따라서 근대 한국 문화가 생산한 과학 이미지들과 그 문화적 표현을 수집하고, 그것들이 아동의 과학적 교양 형성에 기여한 메커니즘을 규명해 나가는 연구는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지식 생산 수단으로서 과학이 지닌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공적 담론장의 미디어를 통해 보충되어 왔다. 과학 대중화의 역사와 시각화의 역사는 결합되어 왔던 것이다.

근대 대중 문화에 있어서 과학 지식의 보급과 교육은 어른보다 민족의 미래와 희망을 담지하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동 과학 담론을 통해 다양한 층위에서의 기술적 실천이 아동의 삶을 조직하는 측면을 분석하고, 이데올로기적 체제 내에서 재구축되는 양상이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 문화 속에서 과학 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상정되었던 아동의 과학적 교양이 각 시기의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요청에 따라 어떻게 반복적으로, 혹은 변용되어 형성되었는가를 살피는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업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의 첫 출발로 이 논문은 1920-1930년대를 대상 시기로 삼아,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발견된 근대 ‘아동’이 계급과 민족의 ‘프로파간다 주체’로 호출되면서, ‘소년 대중’으로 재구축되어가던 역사적 현장 탐색에 집중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신소년』은 그 입장이 “절대 노농 소년(勞農少年)들 층에 잇”기에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강령 하에 ‘프로파간다 주체’로 호출된 ‘소년 대중’의 과학적 교양이 지닌 특성을 매우 잘 보여주는 텍스트라 하겠다.⁵⁵

프롤레타리아 아동잡지에 소개된 사회주의 과학 이론과 문학 방법론은 ‘계급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신소년』 9권 7호 (1931. 7)의 표지화는 이의를 제기하고 변혁을 꿈꾸는 자들에게 쥐어진 해방의 도구로서 문학과 과학을 재현하고 있다(그림 5). 신소년은 노동자의 도상인 ‘낫’과 ‘망치’로 자본주의의 사슬을 끊고 앞으로 진군할 미래적 존재이다. 이들에게 문학과 사회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은 앞서 밝혔듯이 ‘과학’이다. 과학으로 무장한 프로 문학 가운데는 “동무들 중에는 돈 모아 이 다

55 신소년사, “아동예술연구회의 탄생과 우리들의 태도”, 『신소년』 9권 11호 (1931), 19쪽.



그림 5. 『신소년』 표지화 (1931년 7월).

음에 잘살려는 욕심에 기계에 충실한 로예”가 되는 이를 비판하며 “멍텅구리 모양으로 저들에게 그냥 빼앗기면서도 그저 눈물만 짜고 잇는 못난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항을 다짐하는 프롤레타리아 아동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⁵⁶ 이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모인 ‘소년 문학씨-클’은 “잡지에 대한 비판회”나 “동화회, 연극회 가튼 것을 열며 동시에 등사관잡지가튼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⁵⁷ 1931년에는 아동 예술의 연구와 제작 및 보급을 목적으로 ‘신흥아동예술연구회’가 창립되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아동 예술의 비약적 발전을 보여주듯이 “소설 시평이나 동요 월평이 『신소년』, 『별나라』에 많아진다.⁵⁸ 이러한 문단적 시류 속에 동심을 표현하는 ‘동요’를 ‘부르’와 ‘프로’라는 계급성으로 나누어 이론화하기 시작했다. “동심은 순결무구(純潔無垢)한 것이다”, ‘아동은 천진난만한 것이다’, ‘아동은 천사이다’, ‘아동은 신성하다’는 말소리는 과거의 뽕조아적 아동관이였다”라는 비판과 더불어 동요를 “뿌르조아 동요와 푸로 동요로 난우와서 동심에도 계급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⁵⁹ 당대의 프로 동요론을 살펴보면 한 가지 사물을 볼 때에 부르주아 아동과 프롤레타리아 아동은 각각 그 동심에 있어서 다른 감정을 가질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요을 쓸 때 자기가 소속되어있는 입장 즉 토대(土臺)를 떠날수는 없다”는 인식이 동요 창작의 이론적 틀로 자리 잡아 갔다. 표현에 있어서 창작자의 계급적 환경을 우위에 두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동요는 “자기의 실감(實感)”에서 우리나라오는 리얼리즘적 문학관으로 정초될 수밖에 없었다.⁶⁰

문학 재현과 과학적 사유의 형식은 상호 교호하며 역사적 장면들을 개인의 표현 영역으로 이끌어 온다. 1920-1930년대에 프롤레타리아 과학과 문학·예술이 혁명에 대한 책임과 독립적일 수 없다는 신념은 프롤레타리아 소년 소녀에게 글을 쓰도록 요청했다. 무산자 아동이 글을 쓰는 행위는 개인이 체험한 경험을 집단화하며 동시에 역사적 감각을 일깨워줄 수 있다. “밤늦도록 공장서 일을 하다가/꼬불꼬불 산꼴길 거러오면은/과란달을 동모로 돌아옵니다” 라는 동요의 구절을 통해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ere)가 언급했던 ‘프롤레타

56 현동주, 앞 글(각주 51), 9쪽.

57 정청산, “소년문학씨-클 이야기”, 『신소년』 11권 8호 (1933), 2-5쪽.

58 호인, “兒童藝術時評”, 『신소년』 10권 7호 (1932), 13-16쪽.

59 김병호, “동요강화”, 『신소년』 8권 11호 (1930), 18쪽.

60 이동규, “동요를 쓰려는 동무들에게”, 『신소년』 9권 11호 (1931), 14-18쪽.

리아의 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⁶¹ 프롤레타리아의 밤이란 말 그대로 “밤의 시간, 프롤레타리아트가 낮 동안의 노동을 마친 후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이탈하고 주체화 과정을 감행하는 한에서의 ‘밤’이라는 시간”을 뜻한다.⁶² 따라서 그 밤이란 어떤 의미에서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며 불일치를 생산하는 문학과 사회주의 과학을 결행할 수 있는 ‘해방’의 시간이기도 하다.

(투고: 2015년 3월 23일, 심사 및 게재 확정: 2015년 4월 14일)

61 김병순, “품파리 소년(동요)”, 『신소년』 9권 1호 (1931), 23쪽.

62 최정우, “자크 랑시에르: 감성적/미학적 전복으로서의 정치와 해방”, 홍태영 외, 『현대 정치철학의 모험』 (난장, 2010), 83-118쪽 중 85쪽.

Science For Young Revolutionaries: Marxism, Darwinism, and Proletarian Children's Literature, 1920-1935

HAN Min-Ju (Hongik University)

Abstract. In the 1920s and 30s, scientific marxism appealed to the colonized due to its promise that socialism can reach the status of science. However, historians of science have paid scant attention to the intellectual history of marxism during this period. The same was true for the Korean scholars in literary studies that examined class literature.

This paper focuses on the literature targeting proletarian children during the 1920s and 30s. Modern proletarian children's literature has exhibited a strong purpose to nurture the children into protagonists of class construction in the independent nation state. One of the main content of the progressive education was "science." Within popular children's magazines, scientific and social knowledge were interconnected, forming hybrid fusions. All knowledge becomes tools of Marxist socialist science.

This paper shows that the propagation of scientific literacy was influential in the process of reconfiguring modern "children" into "young mass." Toward this goal, I will examine the world view provided by the scientific education through analyzing its iconic representations.

Keywords. Sinsongyeon, proletarian children's literature, theory of evolution, marxism, science fiction.